

아동 학대·사망 느끼는데 전담공무원이 없다

광주·전남 지자체 27곳 중 15곳 '전무'...1명당 최소 100여건 담당 설 신고 건수 전년비 배 가까이 증가...배치 인력 확대 등 대책 절실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동 학대를 전담할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전국 평균에도 무려 10%나 뒤떨어지는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지자체 27곳 중 15곳(56%)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단 한명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담 공무원이 있는 지자체 일지라도 담당자 한 명이 최소 110여건 이상의 신고 사건을 처리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사실상 아동학대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이며,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45%)에 달했다.

복지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은 연간 접수되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1인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지자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역은 5개 자치구 중 북구와 광산구 등 2개

구에서 7명이 배치, 배치 기준인 21.8명의 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접수가 총 1089건인 것을 감안하면, 전담공무원 1인당 156건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 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1명으로 증원했으며, 오는 7월까지 남구, 서구에도 전담공무원을 확대해 5개구와 광주시에 총 19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역시 22개 시·군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지역은 목포·순천·나주·구례·신안 등 10곳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는 2453건으로 전담공무원 49.1명이 필요하지만 배치 인력은 22명뿐인데다 1인당 처리 건수는 112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올해 안으로 기존 10개 시군 외에도 22

개 시군 전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1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전담 인력 추가 배치와 보호시설 확충 등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이번 설 연휴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설 연휴인 11~14일 전국의 112 신고를 집계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평균 47건으로 지난해(24건)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원활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위해서는 내근직 1명, 폭행 위협 등을 고려한 외근직 2명 등 최소 3명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며 "보건복지부가 현실적인 최소 인력배치 기준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8cm 눈

광주·전남 18일까지 아침 기온 영하 5도 '뚝'

광주·전남지역에 오는 18일까지 최대 18cm의 눈이 내리는 등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 "서해상에서 해기차로 인해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16일 오후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 눈이 18일까지 이어지며 최대 18cm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측했다.

이번 눈은 16일 오후에 찾아들었다가 밤부터 다시 시작돼 18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광주와 전남서부 지역에는 5~18cm, 전남동부 지역에는 3~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16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낮아져 영하 5도 안팎의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16일 아침 기온은 영하 7~영하 1도, 낮 기온은 5~9도 예상되며 17일 아침 기온은 영하 8~영하 3도, 낮 기온은 영하 2~1도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내린 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쌓인 눈이 얼어 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 빙판길이 생기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낙상사고 등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호남대, 5년 연속 선정

호남대학교가 교육부 주관의 '2020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IEQAS) 평가에서 각종 기준을 통과해 5년 연속 인증대학에 선정됐다.

호남대는 2017년 인증대학으로 선정돼 유효기간인 3년 연속 '인증'을 유지한데 이어, 2019년에 재선정돼 2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여 총 5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자리를 굳혀 가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율, 중도 탈락률, 언어능력,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률, 기숙사 제공률 등의 각종 지표를 매년 모니터링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호남대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학부뿐만 아니라 여학생부와 대학원생까지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입국 현황을 비롯한 자가 격리 및 방역지침 준수 등 대학의 위기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추가 모니터링 평가를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으로 호남대는 11개 언어로 소개되는 교육부 공식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공식되고,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선발 프로그램 등에서 다양한 혜택과 대학특성화사업(국제화) 등 향후 국제화 관련 재정 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 받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친구들이! 오랜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된 15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체육대학내 체육관에서 광주 거점스포츠클럽 회원들이 모여 축구경기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교육청 보직 인사 현장·개혁성 없어”

전교조 전남지부 교육전문직만 우대...추천 교육장제 실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전남도교육청의 교원 인사와 관련해 현장성이 결여 됐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5일 보도자료

를 내고 "3월 1일자로 단행된 전남도교육청의 교원 보직 인사는 혁신 전남교육과 학교 현장성이 매우 결여됐다"며 "현장성이 떨어진 전문직 중심 인사는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도 교육청 과장과 교육장 등 주요 보직 임용자 7명 중 6명이 교육전문직 경력자(장학관 이상)이고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 교육장은 2019년 9월 1일 자 인사 이후 어떠한 시군도 추천하지 않았다"며 "교육감 공약 사업인 주민 추천 교육장 제도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또 "교육 전문직의 교장·원장 승진 비율은 유치원의 경우 33.3%, 초등의 경우 33.3%, 중등의 경우 9.4%로 유치원과 초등에서 교육전문직의 승진 비율이 높다"며 "이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승진 체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9일 인사를 통해 교장·원장 218명, 교감·원감 90명을 승진·전직·전보했다. 장학관·교육연구관 21명, 장학사·교육연구사 87명도 전직·전보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신대 대학일자리센터 5년 연속 최고 등급

동신대 대학일자리센터가 2020년 성과평가에서 호남·제주권 대학교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15일 동신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108개 대학일자리센터를 대상으로 2020년 연차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동신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동신대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 5년 동안 최고 등급을 받은 대학교는 호남·제주권에서 동신대가 유일하다. 동신대는 윈스톱 진로·취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진로·취업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실무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민주 동신대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올해도 학생과 지역 청년들의 체계적인 진로설계와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으로서 지역 다른 대학일자리센터와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MG대광새마을금고

창립40주년

“나에게 힘이 되는 대광새마을금고가 함께합니다.”

아파트 분양자금

대출한도 **최고 70%**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최고 80%**

햇 살 론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 각종 공제(암 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